

문은석선교사 사역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님께 평안을 기원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의 지원으로 척박한 치앙마이 땅에 아름다운 중국인교회가 무럭 무럭 성장하고 있음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치앙마이 중국인교회(주은교회)를 섬긴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중국어 실력도 형편없고, 담임목회 경험도 없는 저에게 너무나 큰 사명을 맡기셔서 부담과 압박감에 힘들기도 했지만 성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 입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교회가 숫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치앙마이에서 가장 건강하고 자랑할만한 교회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허락하신 몇 가지 사역의 내용들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예배사역입니다.

매월 2-3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매월 1회 성찬식을 집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는 날은 경배와 찬양팀을 인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설교를 하는 것이 매번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셔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개혁주의 신학에 바탕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고 다시는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교시간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을 꼭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평신도 훈련사역입니다.

교회의 특성상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기초부터 잘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어 진행하고, 때론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에는 각종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구원파에 속한 젊은 중국 청년들이 교회에 새신자처럼 와서 성도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의 집에 방문하여 성경을 공부하자고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초신자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초신자 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일주일에 두번씩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특별강좌로 과거 곤명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를 초청하여 “어 성경이 읽어지네” 개론을 공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이어 구약성경을 공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선교사역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선교사역이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교회를 일깨워 세계 선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중국선교사의 비전인데 대륙에서 하지 못했던 사역을 드디어 치앙마이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한 가정이 있습니다. 4년동안 치앙라이에 있는 벤엘신학교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치앙라이에 있는 “바산교회”을 돕는 사역을 결정했습니다. 이 교회의 전도사 부부는 기숙사를 운영하여 미안마에서 넘어온 난민들과 홀부모아래 살아가는 학생들을 돌보고 있고, 매일 오후 6시부터 방과 후 학습으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교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중국어로 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등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중국어 찬양을 가르쳐서 주일예배에 특송을 하게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지 교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본 교회 중국인 성도들이 선교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회의 특성상 장기거주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치앙마이에 있는 동안 말씀을 통해 선교의 당위성을 깨닫고 실제로 선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넷째는 소그룹 사역입니다.

매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가 끝난 후 소그룹별로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날의 설교의 내용을 중심으로 받은 다양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은 성도들로 하여금 설교를 더 집중적으로 듣게 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헌금시간에 소그룹이 헌금송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 번 더 모임을 갖게 되고 다양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기도회도 점점 부흥하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뜨겁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은 기도회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강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중보기도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도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아이들도 많아지고 교사들도 다양한 형태의 교습방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기도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중국인 교회 사역을 위해서는 꼭 선교사 비자가 필요한데 2년이 끝난 후 갱신의 과정에서 개인적인 실수로 비자가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재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에 있는데 잘 처리가 되어서 빠른 시간내에서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선교사역에 헌신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름:조비(赵飞,46세),악휘(岳辉,부인 52세), 다니엘(아들,15세),
 제 선교사역에 중요한 동역자이며 주은교회와 함께 선교사역을 펼쳐 나갈 가정입니다. 앞으로 선교훈련도 받고 가능하다면 파송교회도 연결되어서 온전한 선교사의 가정이 되어 선교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현재 동료선교사와 협력하고 있는 선복교회(宣福教会)가 교회와 중문학교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재정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믿음으로 첫 삽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4.선교사 비자 신청 때문에 잠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비자 수속이 잘 되어서 빠른 시간에 사역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024년 7월 22일

문은석 선교사 드림